

제 45 호

연중제 27 주일

(군인 주일, 로사리오 축일)

1973. 10. 7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로사리오의 현의

김영일 신부



매년 한번씩 맞이하는 10월 로사리오달과, 10월 7일 때 피축일을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된셈인지 하늘 높은, 오희이 무르익은 계절은 변함없는데 로사리오의 달과 축일은 점점 쓸쓸하여져 가는 형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소란해가는 세상 빠르고 분주한 분위기, 생활에 지친 피로 때문에 기도의 여념을 찾을 틈바구니를 찾지못한 탓인가도 생각됩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한번 로사리오의 의의와 그 바치는 올바른 방법을 내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로사리오는 구두기도와 묵상기도가 결합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소란하고 분주한 시대에 묵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옛부터 동중정(動中靜)이란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함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움직이면서도 고요한 틈을 찾아야 하고 분주하면서도 정중하게 살아야만 되듯이 분주한 생활속에서도 고요한 기도와 묵상이 있을때 생활에 안식과 신앙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로사리오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특수한 환경과 굳은 의지를 지니고 침묵을 지키면서 안정된 마음의 휴식을 취해서 천천히 바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로사리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생애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애정과 사랑을 쏟으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 감회를 통해 예수님께 친근하는 것입니다. 고찰과 반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천천히 외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기도의 힘으로 그리스도께로 밀려 가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와 성모님의 현존을 생각케하는 로사리오의 본질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사리오기도에 친숙한 사람은 언제나 어데서나 조용한 명상의 분위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으며 속세에 시달린 근심걱정의 본거를 털어 평화의 무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밀레의 만송을 불패에 어제가 모르게 평화하고 온화하고 다정스럽게 보입니다. 저녁에 성당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는 우리의 구속사업이 시작되는 황홀한 찬란을 기념해 주는 기도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세주께서 당신의 어머니가 될 분에게 하늘 나라의 사자를 보내시며 그 의중을 타진하시는 거룩한 장면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루의 어지러운 우리의 일과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로사리오의 기도도 이러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특히꽃고 있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기도만은 우리에게서 멀어져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학동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주여, 만사는 당신 뜻에 달려 있사오니, 아무도 당신의 뜻을 거스리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하늘과 땅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주인 되시나이다
□**제1독서** (창세기 2 ; 18-24, 경향잡지 10월호 P.) 돌이 한몸이 되리라.

□**창계송** ○야훼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도다.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제2독서** (히브리 2 ; 9-11, 성서 P.498) 기록하게 해 주시는 분이 기록하게 된 사람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완성되리라.

□**복음**(마르코 10 ; 2-16, 성서 P.99) 하느님이 맺으신 것은 사람이 풀지 못한다.

□신자들의 기도

1.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금년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나이다. 이 결실이 더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비보다는 태양이 더 필요하나이다.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 저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교회의 힘이신 성신이며, 금년에 사도회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의 풍요함과 육신의 건강을 주소서◎

3. 주여, 지금은 독서의 가절입니다. 이 좋은 때, 우리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눈뜰리게 하소서. 특히 젊은이들을 불량서적의 해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十 주여 비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염성체송** 빵도 하나, 몸도 하나, 우리 많은 사람이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며 모두 한 몸을 이루는도다.

✽ 이 주간의 성경 ✽

- 8(월) 독서 (에페소 1 ; 3-14, 성서 P.437)
복음 (루 가 10 ; 25-37, 성서 P.156)
- 9(화) 독서 (에페소 1 ; 15-23, 성서 P.437)
복음 (루 가 10 ; 38-42, 성서 P.157)
- 10(수) 독서 (에페소 2 ; 1-10, 성서 P.438)
복음 (루 가 11 ; 1-4, 성서 P.158)
- 11(목) 독서 (에페소 2 ; 11-22, 성서 P.439)
복음 (루 가 11 ; 5-13, 성서 P.158)
- 12(금) 독서 (에페소 3 ; 14-19, 성서 P.441)
복음 (루 가 11 ; 15-26, 성서 P.159)
- 13(토) 독서 (에페소 4 ; 1-6, 성서 P.441)
복음 (루 가 11 ; 27-28, 성서 P.159)

그리스도의 정병 (精兵)

김 영 구 신부

우리는 대원수 그리스도의 통수하(統帥下)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을 대적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영적 무장을 완전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신앙으로 싸우는 십자군이다. 국방을 위해 육·해·공군이 있듯이, 영계에도 정병이 없이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죄와 악마와 세상과 이단을 막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는 없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자격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정병의 요령을 추려본다면

(1)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

① 건강 건강은 누구나 원하는 유일한 행복인바 더우기 군인에 있어서 필요하다. 병약자나 불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 더우기 죄로 병든 영혼은 신앙의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에페소 6장 10~20)

② 충성 충성이란 것은 마음껏, 힘껏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은 충성스런 인물을 택하신다.

사람의 눈가림판 하지않고 양심적으로 사는 이를 하느님은 찾으신다.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치 않으면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 기디온은 300명 정예군(精銳軍)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 보냈다.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충복(忠僕)이 되자.

(2) 그리스도 정병의 규범(規範)

① 고난을 인내할 군인생활은 허다한 고난을 극복하여야 한다. 건강에 있어서는 시석지중(矢石之中)을 통과하여야 하며 시산혈해(屍山血海)를 밟아야 하고 폭연탄우(爆煙彈雨)를 무릅써야 하며 총창(銃創)의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내가 없이 어찌 승리할 수 있으리오? 그리스도 정병도 공중 집권자 악마와 창해파도(滄海波濤) 같은 이 세상과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죄악성과 횡행범람(橫行汎濫)하는 이단사설과 싸우는 자로서 인내 없이는 패배(敗北)한다. 고로 인내는 승리의 비결이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에페소 6; 11~13절)

② 완전 헌신 그리스도 정병은 사사 일에 매여서는 안된다.

군인이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의 사람이오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고로 군인이 되면 가정사나 개인의 일은 불고 하여야 한다. 무사삼망(武士三忘)이란 말이 있다.

(가) 군인이 출정할 때에는 집을 잊고

(나) 국경을 넘을 때에는 처자를 잊고

(다) 적진에 입하여서는 자신을 잊는 것이다.

주님의 정병도 한번 주께 헌신한 이상 나를 선택한 대원수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 죽고 국가를 위해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 정병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3) 그리스도 정병의 특전

① 처음 열매를 먹음 눈물과 땀으로 씨뿌리고 김매며 물대고 비료준 농부가 누구보다도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먹는 것 같이 기갈과 박해와 조소를 당하며 친신만고를 겪으며 복음을 전한 자에게 먼저 그 열매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② 민사에 총명과 자유의 복음을 주신다.

(4) 그리스도 정병의 전진훈(戰陣訓)

① 주와 같이 죽으면 같이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같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정(情)과 욕(慾)까지 못박어 영적 죽음의 경험을 갖은자는 그리스도와 한가지로 영원히 살것시오(로마서 6; 4-골2; 12)그러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② 주와 같이 참으면 같이 왕노릇할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후에 오는 것이다. 주님이 성부 우편보좌에 앉으신 영광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후에 얻으셨다.

군인도 전투의 사자(死地)를 통과한 후에야 개선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 버릴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뒹집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모든 우리 교형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출정한 중군신부님과 신학생을 위해 물질양면으로 많이 도움시다)

사 원 모 집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격-생활력이 강한 남녀
구비서류-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씩, 증명사진 1매

기 간-73. 9. 30~73. 10. 30

연 락 처-고사동 1가 417 (전화 ②4755)

전동 4가 31의2 (전북지행 앞)

자세한 것은 직접 오셔서 문의 하십시오.

주식회사 성미 유리아 남전주 지점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신통, 다목적 전기 술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인사드립니다.

날로 새로워 지는 오늘날, 교형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실용적으로 꾸미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그맣게 전라 종합 전자 상사를 차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옆(전 영화에식장 자리)

전화 ② 2757 조 율희(베드로) 올림

□ 성년 특집 □



인사를 나누시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많은 인류중에서 특수한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이며 자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행사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다정스럽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광경은 반드시 그렇지는 못합니다. 미사가 끝나서 헤어지는 상태는 “모르는 사람”끼리와 같이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뿔뿔이 돌아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본당일수록 또 도시일수록 이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더구나 같은 성당에서 1년이 지나고, 2년, 5년, 아니 10년이 되어야 서로 모르는 처지로 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또 어느 직장에 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인사 없이 지내는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 다. 교회 내의 전 가정이 서로 통하고 지내기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같은 구역내에, 같은 구역 회장 관할 아래 속하는 가정간에 “모르는 집”으로 지내는 수도 많습니다. 심한 예로는 구역회장께서도 구역 회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태연한 수도 있습니다.

또 놀라운 추측이지만 큰 본당의 경우 본당 사도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자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사 않는 경우, 인사 없이 일어나는 몇몇치 못한 상태를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 찾아온 외교인이나 미신자를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당을 처음 방문한 분들이 가톨릭에 “냉정하다” “친절미가 없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습이며 부끄러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로 계속하여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것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을까요? 교리를 논하거나 에덕을 운운하거나 결덕을 들먹이기 이전에 단순한 사회생활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있는 신자간에 자주 오고가는 말이며 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 이면서도 좀체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 신자가 “모르는 사람”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만 실천이 문제일 뿐입니다. 신자간에 서로 인사를 교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쑥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모르는 사람”이 “알게”되는 방법은 그것 뿐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르는 사람과 인사 교환을 한다면 자연 전 신자가 아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시각부터 실천하면 어떨겠습니까? 이 미사가 끝나서 밖에 나가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인사교환을 합시다. 우선 이 자리에 모인 신자만이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 없이 알고 지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실천합시다.

① 이번 성년동안에 매일 첫주일 공식미사후에 공식행사로서 인사교환을 합시다.

② 공식미사외의 평일 미사후에도 서로 따뜻한 인사교환하기를 권고 합시다.

그래서 “인사” 않는 “교회에서 “인사 잘 하는” 교회로 바꾸며 “냉정하고 친절미 없는” 교회에서 “다정하고 친절한” 교회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화기에애한 기풍이 감동케 되면,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필연적으로 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주 파티마 의모후 꼬미씨음)

요십이 (12) 김병오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33498)

- 10월 9일(화) - 8시 성경교실
- 11일(목) - 8시 지성인 교리
- 12일(금) - 8시 레크레이션 - 주회 ; 가톨릭센타와 JOC
- 외국 문화교실 ; English Conversation
- 매주 ; 화, 금 7시
- 독어 ; Heiderose ; 화, 목 6시
- Morgentau ; 월, 수 6시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 범 장 고
 { 식유스트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3 8121
여 요 셉(운창)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오거리통, 동아여관 앞
전화 3 6094

소년 견습공 모집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소년으로써 인쇄 기술 습득을 원하는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보광출판사
전주시 서노송동 601
전화 3 272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꾸르실로 전국 울드레아 (문의처 전화 ㉠3998)

- ① 때와 곳-10월 24일, 서울 서강대학교
 - ② 회비-1,500원(전국 회비 및 서울 교통비 포함)
- 꾸르실리스타 형제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중망)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임시 회의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각 부장은 연중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하실 것.
2. 교무금 자진 신입 (10월중에)
작년도에 비해 15% 인상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3. 애령회 임원 선출 (회원 모두 협동합시다)
회장 이갑진
임원 강정애, 김기남, 김순덕, 김진주, 문승남,
방용석, 서병완, 원현식, 이두만, 장순례,
최성환, 하정호
4. 꾸리아 윌레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강당)
5. 사도회 임원 성지 순례 (오늘 저녁 미사때까지 신
입 바람)
① 때와 곳; 10월 9일, 서울 절두산
② 회비; 1천원 (점심등 일체 경비 분당 부담)

◆ 감사합니다

성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저거회 창립 기념 식수
□지난 주일 봉헌금 32,683원 (예산액 4만원)
교무금 신입액 93,5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오늘 형제회 윌레회 없습니다
착복하신 6형제, 서약하신 13형제께 축하드립니다.
2. 사도회 신·구 임원, 구역장 회의 (10시 미사후)
3. 신용조합 윌레회 (다음주일)
4. 분당 애령회 옥의 행사 (곳; 속리산)
14일까지 사무실에 등록하십시오. (회비 4천원)
□지난 주일 성미 4말 (누계 68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08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교리 시간 안내
학생 및 성인 예비자-주일 11시
주일학교-주일 오후 2시반
학생회-토요일 오후 5시
2. 사도회의 시간 안내
상임위원회-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8시
확대 회의-매월 첫 주일 공식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5,885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교무금 자진 신입은 10월중에 (20%인상)
3. 예비신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후, 수요일 저녁미사
후)
◎ 사도회 임원 명단 ◎
감사 전중근, 윤화복
선교부장 김화영, 교육부장 이창우, 재정부장 장동
주, 사회부장 임한전, 부녀부장 김순희, 총무부장
이경호, 구역장 천원 유임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199말 2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461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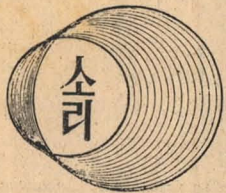
1. 사도회 (다음 주일 저녁미사후)
회장단, 부·차장, 감사, 교문 등 전원 참석 요망
2. 구 사도회 임원께 감사드립니다
3. 영세자 교리시간 안내
① 10월 9, 11, 12, 13, 16, 17, 19, 20일-밤 8시
② 10월 21일 (전교 주일) 오후 2시 영세 예정
◎ 사도회 임원 명단 ◎
회 장 최상익
부회장 이승우, 한형수
□지난 주일 봉헌금 10,218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밤 미사후, 사제관)
사도회 임원 각 구역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74년도 교무금 신입 (밤 7시 반)
9(화)-전동, 교동 1, 2가, 다가동
10(수)-동, 서완산동, 기타동
11(목)-풍남동, 노송동, 중앙동, 경원동
3. 대건 신용조합 임시총회 (오늘 밤 미사후, 강당)
□지난 주일 봉헌금 30,174원, 감사합니다.



◎ 지난 9월 29일 광주 사
레지오 여고 순례단 103명이
전주에 성지순례차 다녀갔다
초가을 비가 쏟아지는 가운
데에도 순례단들은 온통 비
를 맞으며 숲정이를 다녀갔
다. 그 이튿날은 복자성당에
들려 미사를 참례하고, 이후

갈대와 유요안을 찾아 습산에 올랐었다.
다시 지난 10월 3일에는 논산과 광주에서 각각 10여명
과 60여명의 순례단이 다시 숲정이를 찾았다.
성년이 시작되는 금년의 순교성령에는 다른 교구로 부
터 전주의 순교성지를 찾는 발걸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찾아진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 교구 안에서의 관심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순교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복자성당도 그렇
고, 순교자들의 피로 다져진 숲정이를 찾는 교우들의 발
걸도 다른 해보다 더욱 뜸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교구

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없었다.
무언가 새로운 관심을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
성년에.

◎중앙성당 부녀부 피정(10, 1-3, 광주)에 5개월된
비오군이 울지도 않고 참석해서 이체를 띄었다. 얼마를
떠라 피정에 참여(?)한 비오군은 엄마와 더불어 조용히
강의도 듣고 해서 다른 엄마들한테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교회일이라면 모두들 고개를 내치는 판국에 젖면
이를 들쳐 업고 나선 젊은 엄마의 구성(?)이 놀랄울 정
도로 장하다. 시내 모든 분당의 사도회 임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서로를 책임을 맞지 않으려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된 듯한데, 평소에도 비오 엄마
는 성가대에 비오를 업고 나온다고 한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성 바오로서원에서는 학교등 직
장에 도서 전시회를 가져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이
와 열광을 맞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교자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문교부를 통하여 각 학교로 협조 의뢰 공
문을 낸 수녀님들의 정성에 그저 놀랄 수 밖에 없다.
시내 각 기관의 책임자되시는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
가 아쉽다.